

연중 제 28 주일:

2016 년 10 월 9 일 (다해)

산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6 권 37 호



주일 미사: 오전 9 시 (한국어, 영어), 오전 10 시 30 분(영어), 오후 12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오후 2-6 시), 화.수요일 (오전 9:30 시-오후 8 시). 목 (오후 2-6 시),

금요일(오전 9:30 시-오후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24)	봉헌 (210)	성체 (174)	파견 (236)
2016 년도 구역 및 구역원 명단		성소를 위한 기도		
1 구역 : 유 마리아(구역장), 이 바실리오, 배 실비아, 배 안젤로, 양 유리안나 오 베드로, 오 루시아, 유 요한, 손 아놀드, 손 잼마, 최 요안나, 최 마태오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2 구역: 이 마틸다(구역장), 이 그레이스, 장 글라라, 이 요한, 이 요셉, 이 데레사, 전 제노베파, 김 안드레아, 김 마르타, 데니엘 한, 사비나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3 구역: 김 헬레나(구역장), 박 니콜라스, 박 마가렛, 김 마론, 김 데오도라,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허 루카, 배 시몬, 김 글라라. 이 율리안나.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4 구역: 김 유스티나(총 구역장), 홍마르코, 홍아네스,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이 글라라, 이 안드레아, 이 안젤라, 정 바오로, 정 릅타, 김 유수티노, 김희정, 고순영.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0/9	이 그레이스	이 요한,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10/16	박 니콜라스	이 바오로, 김 헬레나	박 다니엘
10/23	이 마틸다	이 요한, 김 유스티나	성인 복사
10/30	유 요한	이 바오로, 김 헬레나	박 다니엘
11/6	이 그레이스	이 요한,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11/13	박 니콜라스	이 바오로, 김 헬레나	박 다니엘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차 봉헌	교무금
10/2/16	\$317	\$65	\$850

새 신자 교육 9월 부터 시작

9월 4일부터, 한인공동체 새 신자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 하였습니다. 주위에 새 신자 교육을 받아야 되실분이나, 관심이 있으신분들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박 마가렛 자매님께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술이 원수, 무너지는 가정

하중은 데오도시오

카프성모병원 알코홀치료센터장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환자를 만나기 전에 프란치스코 성인의 ‘평화의 기도’를 바치곤 합니다. 중독으로 인해 가족 간에 반목하고 절망하는 현실을 마주할 때면, 이 기도문이 저와 중독자들에게 주시는 소명이자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몇 해 전에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가 칼을 들고 가족을 위협하자 아들도 칼을 들고 맞서는 바람에 몸이 다쳐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만났습니다. “술이 원수지요. 제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술에서 깬 그는 인상 좋고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의가 바르기는 그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시련을 준 것일까요?

중독을 흔히 ‘가족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병은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바쁜 삶에 지쳐 어른들은 술에 의지하고,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몰입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합니다. 술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것에 익숙해지면 점차 대화 시간은 줄어들고 급기야 의사소통은 단절됩니다. “가족이 뭘 알겠어! 한잔하자고. 우리 마음은 우리만 알지!” 술을 마셔야만 시름을 잊게 되고, 가족은 잔소리나 하는 귀찮은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술은 서서히 우리의 뇌를 잠식합니다.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면 뇌의 깊숙한 곳에 잠들어있던 자기연민과 분노가 솟아납니다. 사고체계가 망가지고, 진심이 아닌 증오로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뇌의 충동 조절 능력을 상실하면 가정폭력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가정폭력의 70% 이상이 음주 상태에서 벌어집니다. 중독자의 아내가 우울증에 걸리고, 자녀에게 알코올 중독이 대물림되는 일 또한 흔합니다. 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가정의 평화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내 된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바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에페 5,21-33 참조)

공동체 소식

평협 임원회의: 10/16 (일) 오후 7시

10월 한인공동체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는, 둘째 주일인 10월 16일(주일) 저녁 7시에 사제관에서 있습니다.

목주기도 성월

10월은 목주기도 성월입니다. 미사시작 30분전에 삼중기도와 목주기도 5단을 바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목주기도 성월을 맞아, 성모님의 전구를 통하여, 주님께서 베푸시는 많은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가을 피정 계획

지난주에 성경공부(성서통독)가 성황리에 시작 되었습니다. 열심히들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의 여러가지 사정상, 우리 공동체가 2016년에 피정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정에 관하여,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구역장이나, 총구역장에게 전하여 주시면, 2주간의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2016년 가을 피정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은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 성당 골프 대회, 10월 2일, 12시 30분. River Lakes G.C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마칠수 있도록 도와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어느때 보다도 화기애애한 가운데,가진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봉사를 해주신, 봉사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술잔을 내려놓고 주님을 대하듯 진실한 마음과 행위로 가족을 대해야 합니다. 가족 간에 나누는 위로와 진심 어린 대화, 함께 누리는 행복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와 자식이 절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억박지르고 손을 댔습니다.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정작 가족에게는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가족을 존중하는 것이 내가 존중받는 것이고,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한 회복자가 제게 해준 말입니다. 그는 중독자의 삶을 버리고 성숙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변화자 가정의 평화도 찾아왔습니다.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생을 얻게 됨을 깨닫게 하소서’ 성인의 기도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성체께 공경을 드리나요? 성체 공경에 대한 첫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성체입니다. 성체 외에도 성체 현시, 성체조배, 성체 강복, 성체 거동, 성체 대화 그리고 성시간 등의 유형으로 미사 밖에 서도 성체께 공경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리 상식)

어떤 방법으로 성체께 공경을 드리나요?

성체 공경에 대한 첫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성체입니다. 성체 외에도 성체 현시, 성체조배, 성체 강복, 성체 거동, 성체 대화 그리고 성시간 등의 유형으로 미사 밖에 서도 성체께 공경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자 재교육 교리 상식 1 「미사 전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